

“회암사지 道사업비로 정비 寺址 발굴· 보존 모범사례”

순학규 경기지사 지역발전 인프라로 구축

양주군, 토지매입비등 예산 580억 지원 요청

유물전시관 건립...토기류 제작 체험실 등 설치

양주 회암사지(국가 사적 128호)가 전국 사지 발굴 및 보존의 모범사례로 정비된다. 순학규 경기도지사는 21일 임종빈 양

주군수 등과 회암사지 발굴현장을 둘러보고 “회암사지를 경기도 사업으로 확정, 국내 문화재 발굴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순 지사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인 만큼 양주군은 회암사지가 지역발전의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회암의 밑그림을 그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군은 이날 회암사지 보호구역 토지매입비 2백44억원, 발굴조사비 33억원, 유구정비비 1백29억원, 전시관 건립비 1백억원, 기타시설물 설치비 74억원 등 총 580억원의 예산에 국비와 도비의 지원폭을 늘려달라고 순 지사에게 요청했다.

양주군은 회암사 정비계획을 설명하

는 자리에서 2008년까지 580억 들어 이미 지정된 보호구역(10만 평)외에 사유지를 매입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추가 발굴조사, 유물전시관 건립, 발굴된 유적지에 대한 정비 등 대대적인 보존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총 689종에 이르는 출토 유물의 보존관리를 위해 지하 1층, 지상 1층 550평 규모의 유물 전시관을 건립계획을 설명했다. 유물전시관에는 회암사 역사 등을 알 수 있는 회암사실, 토기류를 제작 해보는 체험 교육실 등을 갖춘 계획이다.

회암사지는 고려 충숙왕 15년(1328년) 원나라를 거쳐 인도에서 온 지공스님이 아라난타사(阿羅難陀寺)를 본떠서 창건한 266칸의 대규모 사찰이었다. 고려 말 3천여 스님이 수행하던 총본산이었으며, 조선 초에는 태조 이성계가 태상왕으로 물러나 무학대사와 수행했던 왕실사찰로 유명하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초심자를 신도로’ 일등 노하우

대구청계사 신도회 운상완·최성희 부부

대구 월드컵경기장 뒤 약 1.5km의 산길을 오르면 막바지 불사가 한창인 청계사(주지 설경)가 나온다. 이곳에 매일 아침 10시가 되면 어김없이 법당에 나타나 하룻밤 동안 불단을 쌓인 목은 번지를 뒤아내고 참선과 108배를 통해 마음 속의 티끌을 털어내는 운상완(66, 보산거사와 최성희(63, 구품화)보살. 부부 불자인 윤 거사 부부는 2년간 1시간 거리인 청계사를 찾아 수행과 포교를 계속해 왔다.

아가 버리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윤 거사는 이들에게 스스럼없이 다가갈 절과 참선하는 법 등의 기본 예법에서부터 기초적인 불교교리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제가 처음 절에 갔을 때 아무도 불교에 대해 설명해 주질 않아 자칫 귀중한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할 뻔한 기억이 있습니다” 20년전 기억을 생각하면 아찔하다는 윤 거사는 요즘 절을 지나는 등산객들에게까지 불법을 전한다.

특히, 윤 거사 부부는 절에 처음 온 초발심자들을 소위 ‘청계사 신도’로 만드는 데 일등 공신이다. 이들 부부의 노력을 열매를 맺어 청계사 신도회가 탄생되기도 했다. 윤 거사는 절을 찾는 초심자가 있으면 관심을 보이는 일부터 시작한다. 보통 절을 찾는 초심자들이 낯설고 속스러워하다 이내 돌

운거사의 부인인 최 보살도 항상 웃는 얼굴로 다른 신도들을 이끌어주는 큰언니 역할과 공양간에서 굶은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들 부부가 안과 밖에서 일심으로 수행중인 하는 것을 본 기존의 신도들도 자금을 받아 요즘은 청계사에는 법회 때 함께 오는 부부 불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낮설고 속스러워하는 초심자 찾아 절·참선법·교리 등 알기쉽게 설명



△운상완 거사(왼쪽 두번째)와 최성희 보살(왼쪽 세번째)이 청계사 신도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처음 이곳 청계사를 방문했을 당시만 해도 산속에 다 쓰러져가는 도굴이 고작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홀로 단신 생활하며, 2층 규모의 대법당으로 중창 불사를 하고 계신 주지 설경스님의 노력에 비한다면 저희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윤 거사 부부. 이들 부부는 “언제까지나 청계사 평신도로 남아 어렵게 만난 부처님의 귀중한 법을 항상 실천하며 살고 싶다”며 단정하게 손을 잡았다.



추천의 말
설경스님 청계사 주지 “모두 소중한 신도님들이지만 특히 윤 거사 부부는 우리 청계사의 보배입니다.”

신도회에 활력 불어넣어
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윤거사 부부가 다른 신도님들에게 큰형님, 큰누님 역할을 해주며 신도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런 공을 인정해 신도회 간부라도 맡아 달라고 하니 거절하며 신도회가 잘 되도록 뒷바라지 하는 일에만 만족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윤거사 부부는 진정한 불자입니다.

佛외교관이 본 개화기 한국불교

경기도박물관 ‘만나라 꼬레’ 사진전



△대웅전에 왕족의 목조원패를 모셨을때도 임시로 천을 드리운 불단이 조선불교의 퇴락한 위상을 보여준다. 사진은 서울 근교의 한 사찰 모습.

19세기 말 서양인의 눈에 비친 한국 불교의 첫인상은 어떠했을까? 지금 경기도박물관에서는 ‘만 나라 꼬레’ (~3월 2일)전이 열리고 있다. 1892~1894년까지 제2대 조선 주재 프랑스 영사 및 전권 대사를 지냈던 아폴리트 프랑랭이 직접 촬영하거나 수집한 사진 156장 속에는 개화기 스님들의 모습과 서울 근교 사찰을 담은 사진 5장도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대웅전에 왕과 왕세자, 왕비의 목조원패(木造願牌)를 모셨을때도 임시로 천을 드리운 듯한 불단의 모습은 퇴락한 조선불교의 위상을 확인하게 한다(사진). 이 사진의 가장 없는 기록성은 승려의 도성 출입이 금지(1895년까지)된 당시 상황을 실감나게 증언한다. 1904년 화재로 소실되기 전 북한산 중

흥사 전경이나 당시 외국인들의 관광 코스 중 하나였던 세검정 백불사의 모습도 파편적이긴 하지만 당시 모습을 재구성하게 하는 하나의 단서이다. 전시 기간중 ‘프랑스 내의 한국 문화재 현황’ 등에 관한 학술강연회도 2월 14, 18일 열린다. 권형진 기자

도솔암 마애불 보존방안 전문학술기관 연구용역

고창 선운사 도솔암 마애불(국보 1200호)의 보존대책이 마련된다. 고창군은 23일 선운사 도솔암 마애불 상 마애불의 보호각 건립 등 향후 복원 및 보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억여원을 들여 전문학술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원우기자

‘피스로드’ 캠프 열어 광주니눔의 집, 24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은 24~26일 역사와 인권을 위한 평화교육 캠프 ‘피스로드(Peace load)’를 열었다. 10여명의 중·고교생들이 참석한 이번 캠프는 역사관 관람, 위안부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담은 비디오 상영, 인권영화제 영화 상영, 성매매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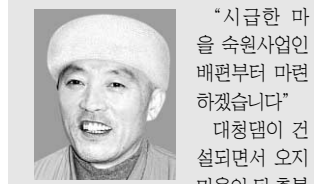


△피스로드 캠프에 참가한 한여학생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영정 앞에서 헌양하고 있다.

박봉영 기자

“마을 일도 포교·수행 방편”

옥천 이평리 이장 도광스님



“시급한 마을 속원사업인 배편부터 마련하겠습니다” 대청담이 건설되면서 오지 마을이 된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평리. 최근 이평리 주민들이 마을회의에서 이장에 도광스님(49, 보현사 주지)을 선출했다. 본격적으로 마을 일에 나선 스님은 “담이 들어서면서 세부분으로 나뉜 마을을 쉽게 왕래 할 수 있는 배편 마련 및 마을까지 버스를 다니게 하고, 마을회관을 짓겠다”며 “힘들어도 단위 이장회의에 가능하면 빠지지 않고, 작은 일도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승려가 세속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수년전부터 마을주민들의 청을 한사코 거절한 도광스님은 ‘봉사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생각에 결국 수락했다. 80세 이상 노인들만 남은 마을에서 젊은 층에 들어가는 도광스님 말고는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다. 이평리 이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을을 도는데만 30리, 면사무소까지 50리를 걸어야 하는 고된 업무를 80세의 노인이 처리하기란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1976년 출가한 도광스님은 통발불교 아마타종 총무원 부원장이다. 김원우기자

화엄학림 제8기 학인 모집 안내

실상사 화엄학림은 『華嚴經』의 탐구와 실천을 통하여 바람직한 수행자상을 정립하고 세 시대의 승가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2년 과정의 전문교육기관입니다.

조계종 교육원의 인가를 얻어 1995년 처음 문을 연 이래 지금까지 7기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학림의 수업은 간경을 한문 글세김에 그치는 오늘날 한국불교 강당의 경학 풍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같은 방식으로는 경전이 담고 있는 사상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수행을 점검하고 바르게 세워가지 못합니다. 경전을 보는 것이 곧 수행과 하나되지 못하고 실천과 괴리된 지식에만 머물 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학림의 강사를 중심으로 학림의 졸업생들이 모여 '어떻게 배우고 가르칠 것인가'하는 주제로 2001년 초부터 2002년 말까지 화엄결사를 가졌습니다.

이로써 화엄학림의 수업은 경전의 자구 해석에 치중하지 않고 우리말로 번역된 경문을 교재로 삼아 공부합니다. 경전의 사상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각 단원의 개요를 파악하고 주요 논점을 잡아 집중 토론하는 형식으로 논강의 전통을 되살리고자 합니다. 또한 한문원전의 독해를 위한 별도의 전문강좌를 갖습니다.

이처럼 『華嚴經』을 통해 불교의 사상을 확립하고 자신의 수행을 바로세워 가고자 하는 스님들의 동참을 아래와 같이 바랍니다.

아 래

- ◆ **교 과 목** : 중관개론 · 유식개론 · 화엄관행론 · 화엄사상사 · 화엄현담 · 화엄경(80회합) · 한문독해.
- ◆ **응시자격** : 기본교육기관(강원, 중앙승가대, 동국대불교학부, 기초선원)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구, 비구니 혹은 사미, 사미니.
- ◆ **제출서류** : ● 입학원서(소정양식)1부 ●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서 1부 ● 사진 5매(반명함판) ● 승려증, 주민등록증 복사본 각 1매
- ◆ **원서교부 및 접수일자** : 2002년 9월 23일 ~ 2003년 2월 21일
- ◆ **원서교부처** : 실상사 화엄학림, 종무소,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ilsang.net
- ◆ **접 수 처** : 화엄학림, 실상사 종무소
- ◆ **전형일시** : 2003년 2월 22일 토요일(음 1월 22일) 오후 1시 실상사
-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 ◆ **입학일시** : 2003년 3월 1일 토요일 (음 1월 29일)
- ◆ **문의전화** : (063) 636-3990 · 3994 · 5920 (화엄학림), 636-3031(종무소)

* 입학 예정자는 소정의 절치를 거쳐 입학일 이전에 미리 와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0번지 지리산 실상사 (우. 590-850)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도 법